****
새시대 교수법 167호 한국공학교육기술학회 / 조벽
****

"새시대 교수법 167호"를 보내드리지 못한지 벌써 석 달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166호를 5월 하순에 보내드렸고, 그 다음 호는 월드컵 2002가 끝나면 곧바로 보내드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6월 한 달은 특이한 한 달이었습니다. 거의 신비스럽기마저 한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그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붉은 악마"들과 함께 시청 앞에서 비를 줄줄 맞으면서 한국팀을 응원하기도 했고, 밤늦도록 그들 틈에 끼어 대학로를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표를 구해 축구장에서 "대~한민국"을 맘껏 외쳐보기도 했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제 가슴을 메웠던 해외 이방인의 설음이 그 자리에서 녹아내려 버리는 듯 하였습니다. 환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무척 혼란스러웠던 한 달이기도 했습니다. "붉은 악마"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학생들이 보여준 펄펄 끓는 에너지와 열정이 여태껏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의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열정과 창의력이 어디에서 또 다시 분출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한국의 학생들이 보여준 자발적 에너지와 열정의 10분의 1 이라도 진실한 학습으로 옮겨가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새시대 교수법"을 쓴다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새시대 교수법"이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무의미"는 무기력을 가져다주는 모양입니다. "새시대 교수법"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글이 한 줄도 써지지 않더군요. 글을 쓰고 지우고, 또 쓰고 지우기를 여러 차례 되풀이 하면서 그만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지 "새시대 교수법"이 오지 않는다는 구독자의 문의를 많이 받았지만 답장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하였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제가 한동안 "새시대 교수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깜빡 잊었던 것입니다 -- "각자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그렇습니다. "새시대 교수법"은 한국 학생들의 에너지와 열정을 학습으로 이동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새 시대에 적합한 교수법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 고마우신 분이 계십니다. 서울대 전기공학부의 박영준 교수입니다. 박 교수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새 학기부터 "새시대 교수법"을 매주 정기적으로 보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희망을 선택하는 새 학기가 되길 바랍니다.

조벽 드림

ⓒ 조벽, 2002